

눈물 속 '희생자 명복' 염원...활주로서 유가족들 또 오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추모식 염수

사고 발생 20일만 무안공항서...유가족·국토부 주최 로컬라이저 인근서 묵념·추모...“원인 규명” 입모아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식이 사고 발생 20일 만에 열렸다.

지난 18일 오전 11시 무안국제공항 2층에선 희생자 유가족과 국토교통부 주최로 합동 추모식이 열렸다.

전남도와 광주시, 무안군은 추모식을 주관했고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회특위는 후원했다.

추모식 시작 한참 전부터 장례를 지킨 700여명의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 300여명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각자 마음을 달랬다. 답답해 보였던 유가족들의 얼굴은 추모 공연 진도 셋집곳이 시작되면서 슬픔이 차올랐다.

진도 셋집곳 보존회는 혼맛이 소리, 고풀이, 찻집, 낚을리기, 지전춤, 김닭음순서로 구성된 추모공연을 통해 약 30분간 망자의 원한을 풀어주고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추모 공연이 끝난 뒤 국민의례 후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과 헌화·분향, 추모사가 이어졌다. 첫 순서로 단상에 선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추모사를 낭독하려다가 북받치는 감정에 고개를 떨근 뒤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박대표는 “17명의 희생자는 소중한 부모였고 사이좋은 형제, 귀중한 아들딸, 항상 마주했던 동료이자 이웃·선배였다”며

“지금도 집에 가면 그들이(희생자) 환한 모습으로 마중 나올 것 같고 그들이 살던 공간에는 아직도 채취가 아른거린다”고 읊조렸다. 이어 박대표는 “하늘에서 다시 만날 때 당신들의 뒷까지 살았다고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겠다”며 “어울리게 돌아간 희생자들이 한을 풀 수 있도록 참사 원인을 하나의 숨김과 거짓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해 나가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도 추모사를 통해 유가족을 위로하며 안전 사회가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모사 후 참석자들은 추모 영상 등을 보며 희생자들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고 유가족 3명은 차례로 단상에 올라 떠난 간식들을 향해 쓴편지를 낭독했다.

이후 가수 송하예씨의 추모곡 ‘내 영혼 바람피어’를 끝으로 이날 추모식은 마무리됐고 유가족들은 교대로 사고



지난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 후 사고 현장인 활주로를 찾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순식 국회의장, 아·야정당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과 추모를 하고 있다.

현장을 찾았다.

첫순서로 오후 1시30분께 무안공항 활주로에 도착한 이들은 박 대표를 비롯한 유가족들과 최 권한대행 등 70여명이었다.

유가족들이 현장을 처음 찾았을 때 활주로에 산산이 흩어져 있던 여객기 잔해는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그러나 기체에서 샌 연료가 활주로에 뿜어내며 매캐한 냄새가 풍겼고, 여객기와 부딪힌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LZ)은 여전히 파손된 상태였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부서진 잔해와도 사가여기저기 흐트러진 시어로 엇가락처럼 흰 로컬라이저 인텐데나 눈에 띄었다.

통통 부은 눈으로 버스에서 내린 유

가족들은 로컬라이저 앞에 나란히 서기 시작했는데, 일부는 가족의 목숨을 앗아간 원인일 수도 있는 흉물(凶物)을 똑바로 보기 힘들어했다.

고개를 꼭 숙인 채 눈물을 닦아내던 유가족들은 사회자의 발인에 맞춰 약 30초간 함께 묵념했다. 10분이 채 되지 않은 묵념을 끝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면서 유가족들은 떠나간 식구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다. 몇몇 유가족은 등을 돌리기 전 로컬라이저를 바라보며 씩씩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다음 달 15일 49재를 지내고 사고 현장을 마지막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안재영 기자

姜시장, 최상목 대행에 '1229 마음센터' 건립 건의

강기정 광주시장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사회제

난 피해자들의 자조공간인 가정 '1229 마음센터' 건립을 정부에 건의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대표단은 전남 오후 전일발령외 5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들은 합동분향소 참배에 이어 가정 '1229 마음센터' 임시 예정지인 전일발령외 5를 둘러보고 광주시가 구상 중인 '1229 마음센

터' 조성계획 등을 보고받았다. 강 시장은 이 자리에서 '1229 마음센터' 조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심리 치유의 첫 출발로 전일발령외 5에 '1229 마음센터'를 운영하고 추후 특별법에 근거해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라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으로 해 부지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광주시가 (유가족 심리 치유·일상회복 등에) 선제적으로 나서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전하지 못한 말, 하늘에는 닿기를...

유가족 윤나리·김다혜·김성철씨 편지

지난 18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 추모식에서 유가족들은 전하지 못한 말을 담아 눈물로 쓴 편지를 읽으며 하늘에 닿기를 염원했다.

◇“서른님은 딸공주라 불러줘고마워” 서른님은 자신을 ‘공주’라고 불렀다. 아빠(故 윤석호씨)에 대해 딸 나리씨는 그저 고마워했다.

처음 사고 기사를 접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다가 아빠의 이름

을 보고선 심장이 너무 뛰고 손이 떨려 운전하기도 힘들었다고 했다.

큰 사고가 아니길, 조금만 다쳤길 바랐다. 탑승객 전원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땐 차라리 아빠의 마지막이 고통이 아니길 빌었다고.

이렇게 돌아오시지 못한다는 걸 알았다면 여행을 못 가게 할 걸 후회 중이라는 나리씨는 눈물만 흐르는 이 순간이 지나고 언젠간 문득 아빠의 흔적을 찾아 추억하며 웃을 날이 오길 바랐다.

◇“함께한 모든 순간 간직할게요” 친구이자 멘토였던 아빠(故 김영준씨)를 떠나보내며 딸 다혜씨는 고인이 자주 하였던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라는 믿음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온기 없이 통통 부은 손을 붙잡으며 오열했다는 다혜씨는 가족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버지이자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구, 어려운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했던 멘토에게 사랑을 자주 전하지 못한 걸 후회한다고 했다.

그처럼 좋은 사람,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혜씨는 함께한 모든 순간을 마음

속에 간직하겠다고 작별을 고했다. ◇“언젠간 울지 않고 미소 지어볼게”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딸과 아내를 한낱한시에 떠나보낸 김성철씨. 살아있길, 찾을 수 있길, 온전히 찾을 수 있길 바라는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딸이 엄마 품에 안겨 있던 덕에 상처 하나 없는 얼굴로 찾을 수 있었다는 것. 참사 전 꿈에서 딸로부터 ‘외로움 값’을 받았다는 김씨는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의미를 이제 알게 됐다. 아내와 딸을 남겨준 분들과 함께 봉사하며 갚아나겠다고 말했다.

또 아내와 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때마다 지금은 눈물이 나지만, 언젠가는 사진마다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겠다고 전했다. /안재영 기자

변곡점 맞은 정준호 의원 선거법 재판...내달 14일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정점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정 의원과 그의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당초 재판부는 다음 달 초까지 증인신문을 이어갈 방침이었으나, 이날 정 의원 측에서 ‘위법 기소’를 주장함에 따라 공소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기로 했다. ‘위법 기소’ 주장은 정 의원 기소 검사 명단에 수사를 개시했던 이의 이름을 지어 보겠다고 전했다. /안재영 기자

지난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면서 대검찰청에 대한 재판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정점으로 변곡점을 맞았다.

개정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사법경찰관이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것으로 수사·기소권 분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14일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혀 어떤 결정이 나올지 관심이 크다. /안재영 기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광주)
Korea Association of Health Promotion

심의번호
220603-중-139779

건강검진 어디서 받을까?

검진은 의료기관에서

예약문의 062)363-4040

<http://gwangju.kahp.or.kr>

